

벤투 감독 “손흥민 부상 결과보고 최종 합류 결정”

오는 25일 일본서 10년만에 한일전...평가전 24인 명단 발표
황희찬 ‘격리 면제’ 논의 중...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첫 발탁’
K리그1 울산 소속 6명 ‘최다’ 발탁...전북현대에는 한 명도 없어

코로나19를 뚫고 10년 만에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팀 한일전에 ‘캡틴’ 손흥민(29·토트넘)이 합류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1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평가전에 나설 24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22일 인천공항에서 소집돼 일본으로 출국하는 벤투호는 25일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 뒤 26일 귀국한다. 이후 대표팀 선수들은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4월2일까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하며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이 합류한다.

손흥민은 이날 아스널과의 복원전 대비에서 경기 도중 전력 질주를 하다 허벅지 뒤쪽을 잡고 쓰러져 교체됐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이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부상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소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벤투 감독은 “아스널전을 보고 부상을 확인했다. 부상 정도나 검사 결과에 대해 축구협회와 토트넘 구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며 “부상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할지, 포함할지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르투갈 출신인 벤투 감독은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과 손흥민 발탁과 관련해 연락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손흥민과 함께 이번 소집에는 해외파가 다수 포함됐으나 프랑스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보르도)과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김민재(베이징과

안), 손준호(산둥루닝) 등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합류가 불발됐다.

또 소속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재성(홍슈타인 킬)도 부르지 못했다.

공격수에는 이정협(경남)과 조영욱(서울)이 뽑혔다. 손흥민이 포함된 미드필더에는 황희찬(라이프치히), 나상호(서울), 이동준, 윤빛가람(이상 울산), 엄원상(광주),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강인(발렌시아), 정우영, 남태희(이상 알사드), 주세종(감바오사카)가 이름을 올렸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정우영은 벤투호에 최초 발탁됐다.

황희찬은 소속팀과 주정부 사이에서 선수 목적지 및 여정표 확인 후 격리 면제에 대한 부문을 논의 중이다. 격리 면제가 안 될 경우 제외하고 23명만 소집할 예정이다.

수비수에는 김영원(감바오사카), 원두재, 김태환, 홍철(이상 울산), 박지수, 박주호(이상 수원FC), 김영민(강원), 윤종규(서울)가 포함됐다.

골키퍼에는 조현우(울산), 김승규(가시와레이슬), 김진현(세레소오사카)이 발탁됐다. 이중 김진현은 2019년 1월 아시안컵 이후 2년 2개월 만에 발탁이다.

K리그1에선 울산 소속 선수들이 6명으로 가장 많이 뽑혔고, 전북 현대는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았다. 또 K리그 2 선수로는 이정협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다음은 벤투 감독과의 일문일답.

-손흥민이 아스널전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한일전 명단에 포함됐다.

“아스널전을 보고 (손흥민의) 부상을 확인했다. 부상 정도나 검사 결과

에 대해 축구협회와 토트넘 구단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부상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할지,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10년 만의 한일전이다. 양국 간의 특수성을 알고 있는지.

“이번 소집은 6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을 대비한 경기다. 22일 소집돼 25일 경기하는 짧은 일정이다. 모든 선수가 함께 훈련하는 날은 경기 전날 하루밖에 안 된다. 명단 구성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코로나19 변수도 있었고 그동안 꾸준히 합류했던 선수 중엔 부상으로 못 오는 선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명단을 꾸렸다. 한일전 의미도 잘 안다.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경기를 하겠다”

-축구 팬들에게 한일전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팬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이다. 그게 제일 먼저 돼야 한다. 또 방역이 허용되는 내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의 일은 축구를 하는 것이다. 방역이란 측면에서 제한이 있었지만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일전이란 기회를 살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가올 월드컵 2차예선을 대비할 기회이기도 하다. 2019년 11월 마지막 A매치 이후 2020년 11월 유럽 원정이 열릴 때까지 1년이란 시간 동안 한 번밖에 소집하지 못했다. 그사

◇축구대표팀 3월 A매치 한일전 명단(24명)

▲GK = 조현우(울산) 김승규(가시와레이슬) 김진현(세레소오사카)

▲DF = 김영권(감바오사카) 원두재(울산) 박지수(수원FC) 김영민(강원) 김태환(울산) 윤종규(서울) 홍철(울산) 박주호(수원FC)

▲MF = 주세종(감바오사카) 윤빛가람(울산) 남태희, 정우영(이상 알사드) 이강인(발렌시아)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손흥민(토트넘) 엄원상(광주) 이동준(울산) 나상호(서울) 황희찬(라이프치히)

▲FW = 이정협(경남) 조영욱(서울)



파울루 벤투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3월 친선 A매치 한일전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로 명단을 구성했다. 이번 소집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력과 방향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나아가 방향성을 주시시켜줄 좋은 기회로 삼겠다”

-코로나19 감염 등 일본 원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번 한일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확인돼 진행했다. 방역 지침과 수칙 등이 우선인데, 의무팀에서 지난해 11월 유럽 원정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덧붙여 전 세계적으로 축구는 진행 중이다. 대표팀 경기도 상당수 열렸다. 물론 남미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 3월에 열리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축구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마련됐고 최대한 안전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는 게 목표다”

-중국파와 유럽 일부 주축 멤버가 안 보이는데.

“명단 구성이 어려움이 많았다. 수비 라인에는 김민재, 김진수(알사드), 김문환(로스앤젤레스FC)이 향

상 기용됐지만 이번엔 소집이 안 됐다. 권경원(김천상무)도 자주 소집됐던 선수다. 미드필더에는 황희찬(루빈카잔)이 팀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선수다. 황희찬도 주축 공격수인데 못 오고 이재성도 마찬가지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손흥민과 황희찬까지 없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진행해야 한다”

-손흥민 차출과 관련해 무리뉴 토트넘 감독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없다”

-국내 선수 중엔 울산이 6명인데, 전북은 한 명도 없다.

“우리가 관찰하는 풀에 전북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명단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축구나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명단이다. 선수들을 선발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두고 선발한다. 소속팀을 보고 뽑지 않는다” 뉴시스

혼다클래식 디펜딩챔피언 임성재 “차분하게 임하겠다”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막판 31계단↑ 최종 공동17위

임성재(23)가 디펜딩챔피언 자격으로 나서는 혼다 클래식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임성재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2)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해 공동 17위에 올랐다.

이날 임성재는 이글 1개, 버디 6개, 더블보기 1개를 쳐 6타를 줄였다. 최

종 순위도 무려 31계단이나 끌어 올렸다. 3라운드에서의 부진을 만회하며 대회를 마쳤다.

임성재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혼다 클래식에서 출전한다. 임성재는 지난해 혼다 클래식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마친 임성재는 “어제 내가 원하는 샷이 너무 안 됐다. 오늘 티오프하기 전에 연습하면서 좋은 샷감을 유지하려고 연습을 했

었다. 그게 코스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들어서, 버디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라운드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3라운드 무방대 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멘탈적으로도 흔들렸다. 좀 차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오늘 마지막 라운드에 만회해서 괜찮은 것 같다”고 전했다.

11번홀에서 이글을 잡은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핀까지 약 215m 정도 남았었다. 앞 바람이 살짝 불어서, 3번



하이브리드로 공격적으로 쳤다. 핀을 바로 보고 쳤는데, 그게 정확히 핀으로 갔다. 그런 옛지에 떨어져서 홀컵 1.5m 정도에 붙었다”고 말했다. 다음주 타이틀 방에 도전하는 임성재는 “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디펜딩챔피언으로 경기에 나선다. 다음주에도 준비 잘하겠다. 코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분히 잘해보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LA다저스 커쇼, 생애 9번째 개막전 선발

클레이튼 커쇼(33·LA 다저스)가 생애 9번째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선발투수로 출격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15일(한국시간) 시범경기를 앞두고 개막전 선발투수는 커쇼라고 밝혔다.

커쇼가 올해도 개막전 선발로 나서면 통산 9번째이다. 그는 다저스 역사상 가장 많은 개막전 선발로 나온 투수다. 커쇼는 2008년 다저스에서 데뷔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357경기에 출전

해 175승 76패 평균자책점 2.43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시범경기에서 5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했다.

커쇼는 30대가 넘어가면서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또한 다저스에는 에이즈급 투수 위크 볼러, FA로 영입한 트레버 바워 등 좋은 투수들이 있다. 그러나 로버츠 감독은 개막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커쇼를 신임했다.



류현진, 오늘 두 번째 시범경기 출격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에이스 류현진의 두 번째 시범경기 등판 일정이 잡혔다.

류현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피블릭스 필드 옛 조커 머천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1 MLB 시범경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전 선발 투수로 예고됐다.

지난 6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 이후 두 번째 시범경기 출격이다.

류현진은 볼티모어를 만나 2이닝 1피안타(1홈런) 2탈삼진 1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투구수는 총 30개. 유일한 안타가 홈런으로 이어진 것이 아쉬웠지만 다른 타자들과의 승부에서는 큰 위기가 없었다.

피겨 김예림-이시형, 회장배 랭킹대회 남녀부 우승



김예림(수리고등학교)이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1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여자 시니어 프리 스케이팅에 출전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2위 유영·3위 윤아선 차준환도 준우승 머물러

2020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서 여자싱글 김예림(수리고)과 남자싱글 이시형(고려대)이 우승했다.

김예림은 14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2.78점, 예술점수(PCS) 66.16점으로 합계 138.94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77.95점을 얻은 김예림은 총점 209.23점으로 2위 유영(수리고·199.06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뉴시스

3위는 총점 195.92점을 기록한 윤아선(광동중)이 차지했다.

김예림은 지난달 26일 제75회 전국남녀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스웨덴 스톡홀름(22~28일)에서 개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따냈다.

이어 랭킹대회에서도 정상에 서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남자부에선 차준환(고려대)이 이시형이 밀려 준우승에 머물렀다. 차준환은 김예림과 함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차준환은 쇼트프로그램(77.95점)에서 1위에 올랐으나,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147.24점을 기록, 총점 224.20점으로 이시형(241.58점)에 뒤지며 역전을 허용했다.

3위는 총점 190.62점을 획득한 이재근(도장중)이다. 뉴시스